

numbers 제 114호



주요 내용

2021.10.08

- 이번 주 주제 : **[한국인의 독서 실태]**
우리나라 성인 44%, 지난 1년 간 책 1권도 읽지 않았다!
- 최근 언론보도 통계
 - **[데이트 폭력 실태]** 2020년 한 해 데이트 폭력 사건, 5년 전 보다 2배 가까이 증가 (하루 52건 꼴)!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우리나라 국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명 중 1명 꼴!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사회 통계

우리나라 성인 44%, 지난 1년 간 책 1권도 읽지 않았다!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은 종이라는 물질을 묶어 펴낸 책을 통해서만 지혜와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이것을 우리는 종이책이라고 불렀다. 종이책을 읽는 독서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성인 기준 종이책 연간 독서율이 1994년 87%에서 2019년 52%까지 급감했다. 소위 e북이라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종이책을 보완하지만 이들 책까지 포함하더라도 종합 독서율이 56%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성인의 44%는 1년에 1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

독서율은 줄었지만 무엇인가를 읽는 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매일 SNS에 올라오는 글을 읽고, 이메일을 읽고,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글을 읽는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활자 형태를 읽어 사고하고 상상하는 건 인간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다. 들음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 읽기 또한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길을 걷다가 '집어 들어 읽으라!'(Tolle lege) 라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읽어 회심을 하게 된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에서 보듯, 대다수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도달하게 하는 축복이다.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14호**에서는 한국의 독서 관련 데이터를 모았고, 마지막에 성경 읽기 데이터를 함께 다루었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독서 환경이 바뀌면서 다양한 독서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응하기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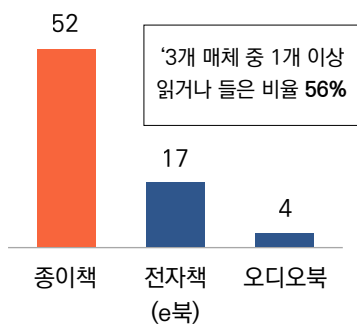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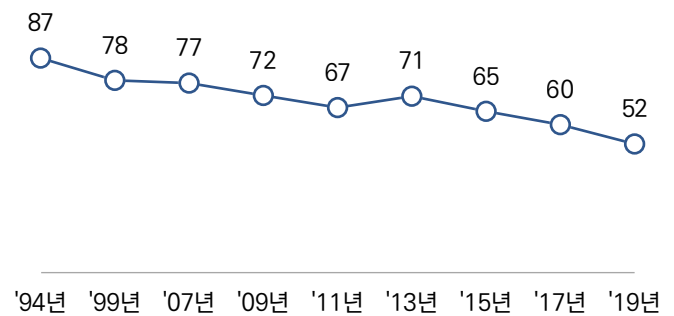
우리나라 성인 44%, 지난 1년 간 책 1권도 읽지 않았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3월에 발표한 ‘2019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이책’, ‘전자책(e북)’, ‘오디오북’ 등 1가지 이상을 읽은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56%로 국민 44%는 지난 1년 간 1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이책 독서율은 52%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그동안 추적 조사 이래 ‘종이책’ 독서율은 매해 하락하는 추세로, 2019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그림] 매체별 독서율(2019년) (%)



[그림] 종이책 독서율 변화 추이(성인) (%)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독서실태조사’, 2020.03.11.(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 면접 조사, 2018.10.1.~2019.09.30.)
**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 제외한 수치임

● 아직까지 전자책(e북), 오디오북의 경우 50대 이상은 거의 읽지 않아!

- 종이책 독서율이 매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이책’ 비율이 ‘전자책’과 ‘오디오북’ 보다는 훨씬 높았다.
- 연령별로 각 매체별 독서율을 보면, ‘20대’가 가장 높은데, 50대 이상의 경우 아직까지 전자책(e북)이나 오디오북을 거의 읽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령별 독서율(2019년) (%)

	종이책	전자책(e북)	오디오북
20대	70	39	7
30대	69	31	6
40대	58	14	4
50대	44	5	2
60세 이상	32	2	1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독서실태조사’, 2020.03.11.(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 면접 조사, 2018.10.1.~2019.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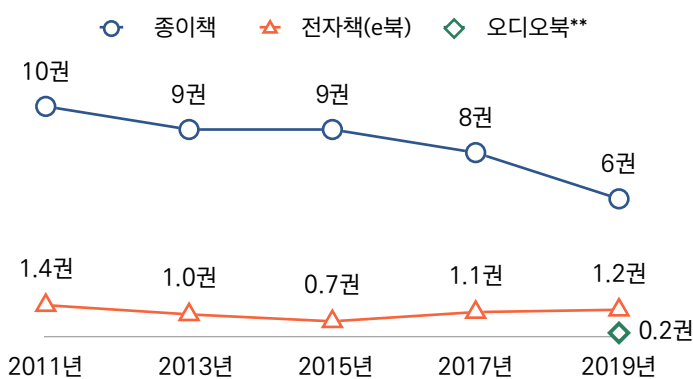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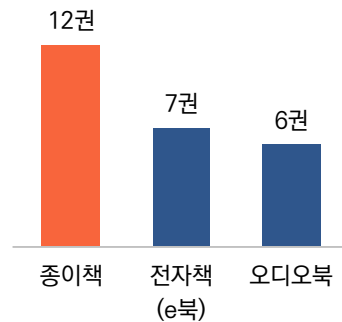
우리나라 성인, 연간 종이책 독서량, '전체 기준' 6권, '독서자 기준' 12권

- 우리나라 성인 기준 1년 독서량은 '종이책' 6권(독서자 기준 12권)으로 나타났다. '전자책(e북)'의 경우 1.2권(독서자 기준 7권)이었고, 이번 조사에 처음 집계한 '오디오북'은 0.2권(독서자 기준 6권)이었다.
- '종이책'의 경우 연도별로 매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전자책'은 2015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독서자 기준으로 보면, '전자책(e북)'과 '오디오북'이 종이책 독서율의 절반 이상 쫓아오고 있어 이 두 매체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 한국 교회가 성경과 신앙 서적에 대한 여러 매체를 통한 독서 프로그램을 고려할만한 데이터다.

[그림] 연도별 매체별 독서량(성인 전체 대상)



[그림] 2019년 매체별 독서량 (성인 독서자 기준)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독서실태조사', 2020.03.11.(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 면접 조사, 2018.10.1.-2019.09.30.)
**오디오북은 2019년부터 조사함

● 종이책 독서량은 '20대'가 8권으로 가장 높지만, 독서자 기준으로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읽어!

- 연령별 독서량은 '20대'가 8.0권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량은 줄어든다. 하지만 독서자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13.3권으로 가장 높은 점이 주목된다.
- '전자책(e북)'의 경우 역시 '20대'가 3.0권으로 가장 높았고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량은 줄어든다. 하지만 독서자 기준으로 보면 '전자책(e북)'은 '종이책'과 비슷하게 '60세 이상'이 11.4권로 가장 높다.
- 읽기가 교회 신앙의 핵심적 요소인 만큼 연령별 읽기 형태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연령별 매체별 독서량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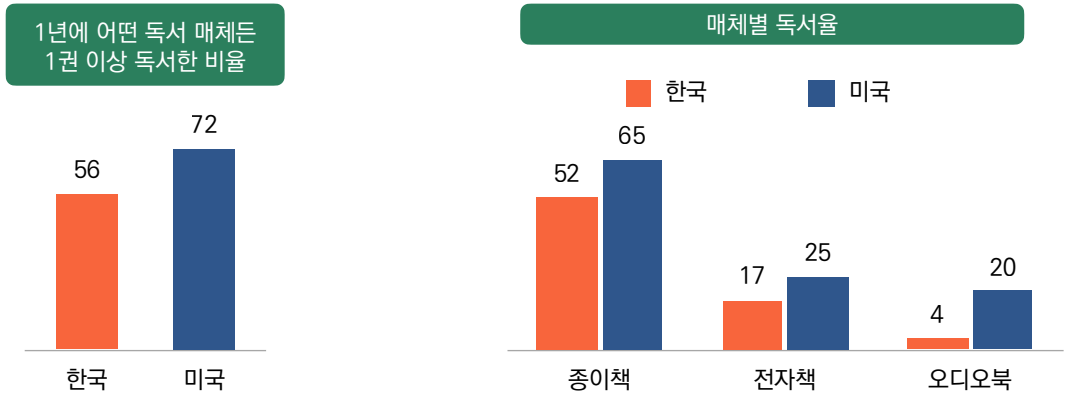
	종이책		전자책(e북)		오디오북	
	성인 전체	독서자 기준	성인 전체	독서자 기준	성인 전체	독서자 기준
20대	8.0	11.4	3.0	7.7	0.3	5.4
30대	7.5	11.0	2.0	6.3	0.4	5.7
40대	7.2	12.5	1.0	7.1	0.2	3.9
50대	4.8	10.9	0.3	5.3	0.2	9.7
60세 이상	4.2	13.3	0.2	11.4	0.0	5.9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독서실태조사', 2020.03.11.(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 면접 조사, 2018.10.1.-2019.09.30.)

● 한국인, 미국인보다 독서율 낮아!

- 2019년 퓨리서치에 따르면 18세 이상 미국인 72%가 지난 1년 간 어떤 매체로든 독서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이책' 독서율은 65%였고, '전자책'은 25%, '오디오북'은 20%를 차지했다.
- 이를 앞에서의 한국 독서율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독서율이 떨어지는 데, 특히 오디오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 vs 미국** 독서율 비교



*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독서실태조사', 2020.03.11.(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 면접 조사, 2018.10.1.~2019.09.30.)

**자료 출처 : PewResearch, 2019.9.25, 'One-in-five Americans now listen to audiobooks', (미국 전 지역 18세 이상 남녀 1,502명, 2019.01.8-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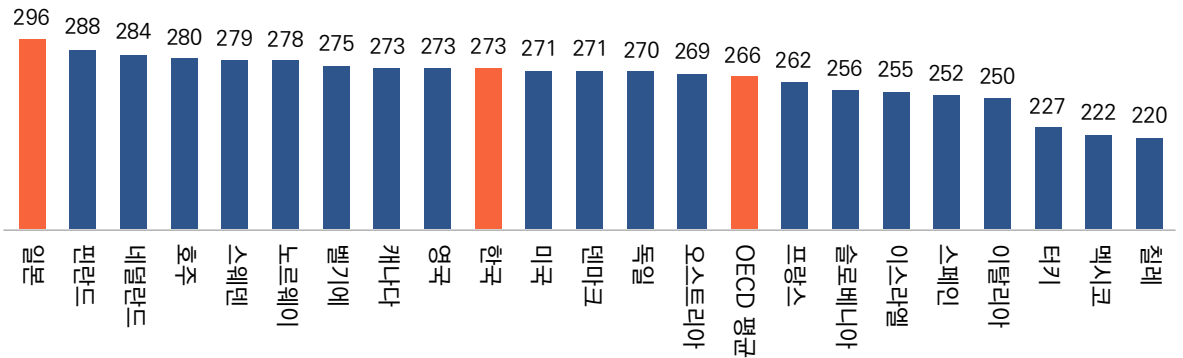
3



한국 문해력(Literacy), 일본(1위)보다 낮은 14위!

- 2019년 OECD 발표에 따르면, 16-65세 한국인의 문해력(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OECD 평균 266 점보다 7점 높아 14위를 차지했는데, 1위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OECD 문해력(Literacy) 비교(주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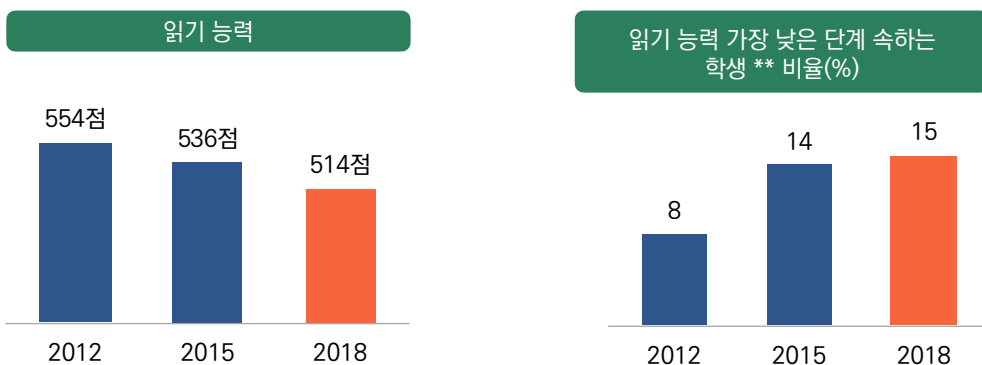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OECD,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2013, 2016, 2019년 조사 결과.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05ec8b3-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605ec8b3-en>)

** OECD 문해력 기준 : 최저 수준 - 176점 이하, 1수준 176-226점, 2수준 226-276점, 3수준 276-326점, 4 수준 326-376점, 5수준 376점 이상

● 한국 학생의 문해력, 해마다 하락 추세!

-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을 3년마다 평가하는 OECD 측정(PISA)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읽기 능력(문해력)은 2012년 554점에서 2015년 536점, 2018년 514점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학생의 경우 문해력 수준의 가장 낮은 단계(1~6단계 중 최저 단계인 1단계) 비율이 2012년 8%에서 2015년 14%, 2018년 15%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 문해력은 일반적으로 독서율과 관계가 있기에 문해력 하락은 주목할 점이다.

[그림] OECD 조사, 만 15세 한국 학생의 읽기 능력 (2012 vs 2015 vs 2018)



*자료 출처 : 교육부,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2012, 2015, 2018 비교 연구 결과 발표', 2013. 12. 4, 2016년 12. 06, 2019년 12.04
 ** OECD PISA 조사에서 읽기 능력 수준을 1-6단계로 구분하는데 그 중 짧은 문장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을 1단계 수준으로 정의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주관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1998년부터 시작되어 3년 주기로 참여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읽기, 과학 소양을 평가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학업성취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만점은 없으며 500점대에서 국가 간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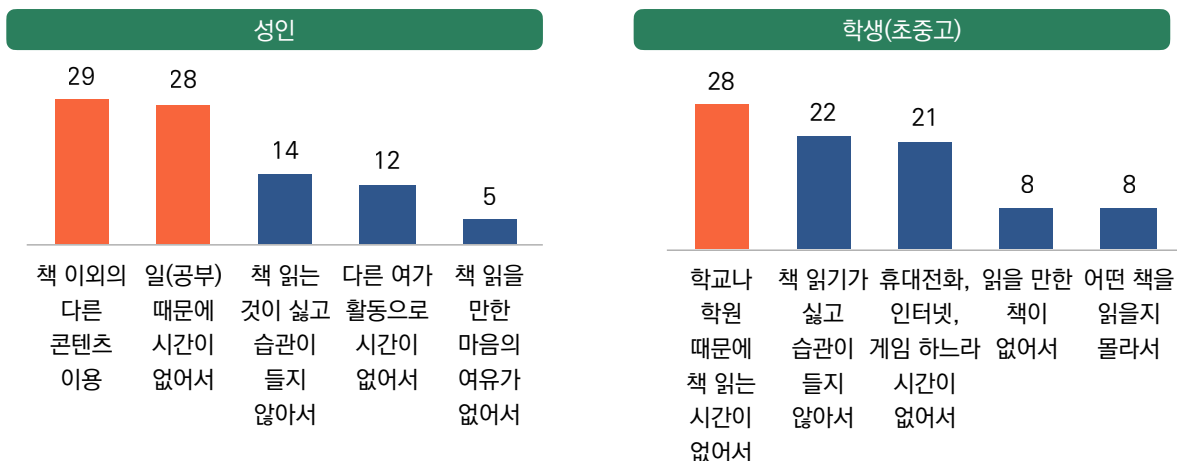
4



독서를 어렵게 하는 요인, '책 이외 다른 콘텐츠 이용' 29%

- 평소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성인은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 29%,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28% 등이 높았고, 다음으로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14% 순으로 응답했다.
- 학생의 경우 '학교나 학원 때문에 책 읽는 시간이 없어서' 28%로 가장 높았고,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22%,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2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독서를 어렵게 하는 이유 (성인 vs 학생, 상위 5위)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독서실태조사', 2020.03.11.(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 면접 조사, 초(4-6년)중고 학생 3,126명, 자기기입식, 2018.10.1.~2019.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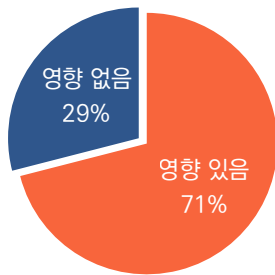
5



코로나19, '읽기 생활에 영향 미쳤다' 71%!

- 코로나19로 인한 읽기 생활 변화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10대 이상)의 10명 중 7명(71%)이 '코로나19가 읽기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 가장 크게 증가한 읽기로는 '전염병/건강/의료 정보와 관련된 읽기'가 69%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 64%, '사회 변화를 알기 위한 읽기' 59% 등의 순이었다.

[그림] 코로나19가 읽기에 미친 영향**



[그림] 코로나19 이후 읽기 생활 '증가했다' 응답률(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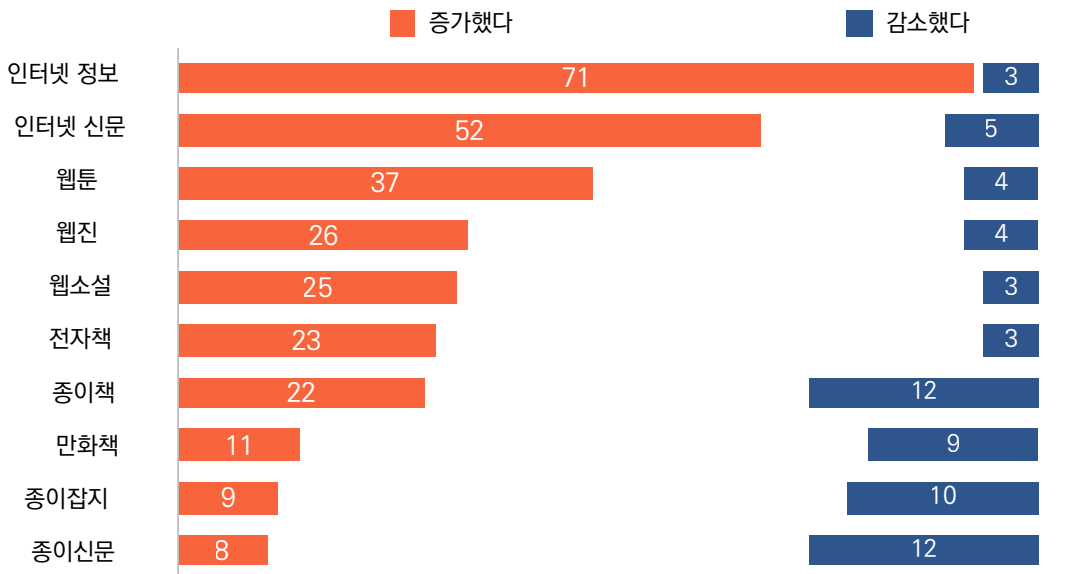


*자료 출처: 책과사회연구소, '코로나19와 읽기 생활 변화 조사', 2021.09.27.(전국 10대 이상 남녀, 3,000명, 온라인조사, 2021.08.16.-20)
 ** 4점 척도로 '매우+있는 편', '전혀+없는 편'의 수치임

●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읽기 증가했다!

- 코로나19 전후10개 매체를 대상으로 읽기 변화를 조사한 결과, '증가했다'는 응답이 '인터넷 정보'가 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신문' 52%, '웹툰' 37%, '웹진' 26%, '웹소설' 25% 등의 순이었다.
- 감소한 매체로는 '종이책'과 '종이 신문'이 각각 12%로 높았고, 다음으로 '종이 잡지' 10%, '만화책' 9%, '인터넷 신문' 5% 등의 순이었다.
-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증가했고, 종이 기반 매체 이용률이 줄어든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코로나19 전후 매체별 읽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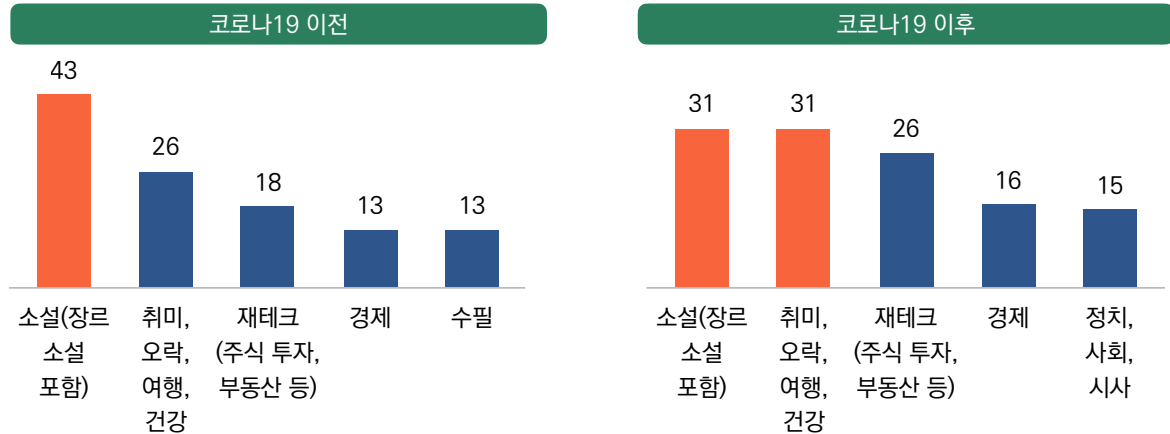
*자료 출처: 책과사회연구소, '코로나19와 읽기 생활 변화 조사', 2021.09.27.(전국 10대 이상 남녀, 3,000명, 온라인조사, 2021.08.16.-20)

● 코로나19 이후 자주 읽는 책 분야, ‘재테크’ 관련 분야 1위!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자주 읽는 책의 변화를 보면, 코로나 이전엔 ‘소설(장르 소설 포함)’ 43%, ‘취미/오락/여행/건강’ 26%, ‘재테크(주식투자, 부동산 등)’ 18% 등의 순이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소설’ 비율이 떨어지고, ‘취미/오락/여행/건강’과 ‘재테크’ 관련 서적 독서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이후 자주 읽는 책(복수 응답, 상위 5위)

(%)



*자료 출처 : 책과사회연구소, ‘코로나19와 읽기 생활 변화 조사’, 2021.09.27.(전국 10대 이상 남녀, 3,000명, 온라인조사, 2021.08.16.~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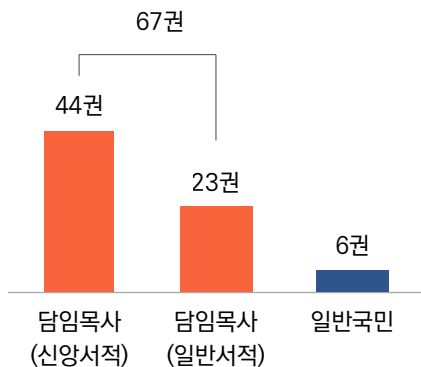
한국 교회 담임목사

1년 간 독서량 67권, 일반국민 6권!

-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독서량은 어느정도일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에서 조사한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교회 담임목사의 경우 연간 ‘신앙서적’ 44권, ‘일반서적’ 23권 등 총 67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일반국민 6권의 11배나 되는 많은 양이다.

[그림] 한국교회 담임목사 vs 일반국민** 독서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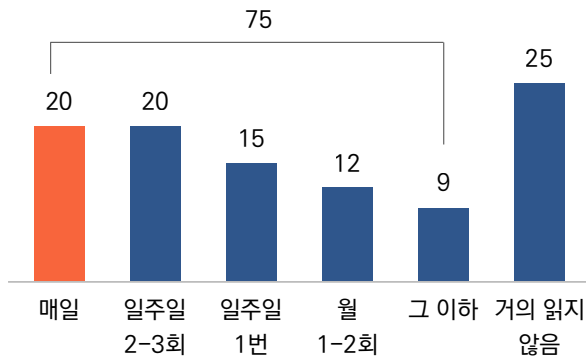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목협, ‘2017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조사’ 2018.01.09. (전국 교회 담임목사, 507명, 대면조사/온라인조사병행, 2017.10~11)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독서실태조사’, 2020.03.11.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 면접 조사, 2018.10.1~2019.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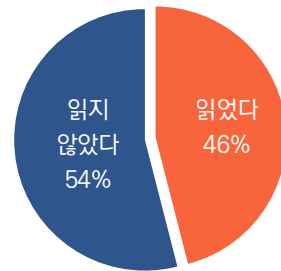
● 한국 개신교인, ‘매일 성경 읽는다’ 20%

-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읽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75%가 평소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했으며, 매일 성경을 읽는 비율은 20%로 조사됐다.
- 지난 1년간 신앙서적 독서 경험으로는 ‘읽었다’ 46%, ‘읽지 않았다’ 54%로 읽지 않은 비율이 약간 높았다.
- 지난 1년 간 신앙서적 독서 경험자 중 평균 독서 권수는 2.6권이였다.

[그림]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읽기 빈도(예배시간 읽는 것은 제외함) (%)



[그림] 지난 1년 간 신앙 서적 독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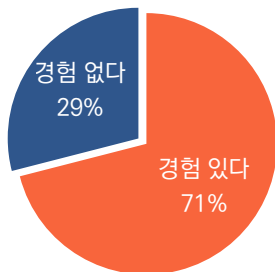
신앙서적 읽은
평균 권수
(독서자 대상)
2.6권

*자료 출처 : G&M 글로벌문화재단,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 조사', 2017.04.10(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700명, 온라인조사, 2017.03.22.-27)
**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읽기관련 2017년 조사한 자료가 가장 최근 데이터이어서 소개한다. 조사시점이 2017년임에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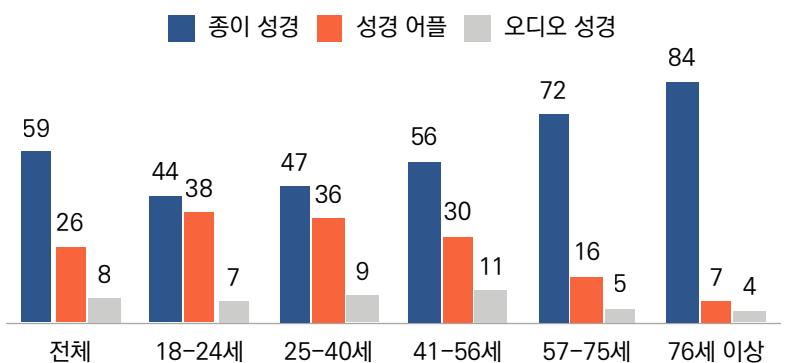
● 미국 전국민(성인)의 71%, 지난 1년 간 성경 읽거나 사용했다!

- 최근 발표한 미국성경협회의 'State of the Bible USA 2021'에 따르면, 미국 성인 71%는 지난 1년 간 성경을 1번 이상 읽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경우 종교와 상관 없이 전국민의 71%가 성경을 읽거나 사용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 전체 미국인의 59%는 '종이 성경'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그다음 '성경 어플' 26%, '오디오 바이블' 8% 순이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성경 어플' 선호도가 올라가고 '종이 성경'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지난 1년 간 성경을 1번 이상 읽거나 사용한** 경험 (미국인)



[그림] 연령별 성경 매체 선호도(미국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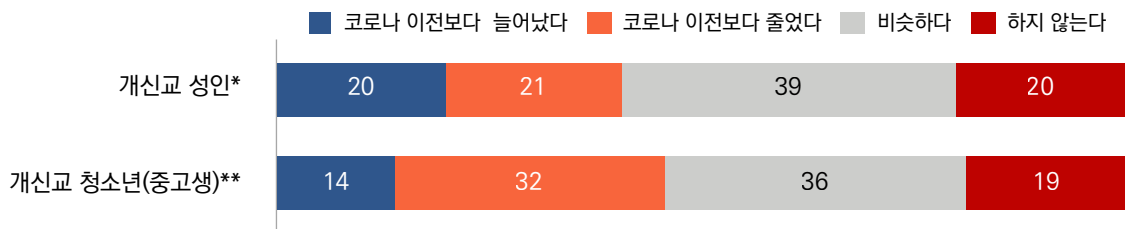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American Bible Society, 'State of the Bible USA 2021', 2021.08.10.(미국 전 지역, 15세 이상 3,445명, 온라인 조사, 2021.1.4.-29)
**State of the Bible USA 2021의 원문에 따르면, Bible Users는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코로나19 이후, 한국 개신교 청소년 성경읽기/공부 ‘늘었다’ 14%, ‘줄었다’ 32%

- 우리나라 개신교 성인의 코로나19 이후 성경 읽기 또는 성경 공부 시간의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올 6월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늘었다’ 20%, ‘줄었다’ 21%로 코로나 전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개신교 중고생의 경우는 ‘늘었다’ 14%, ‘줄었다’ 32%로 줄은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성경 읽기/공부 변화(개신교 성인* vs 개신교 중고생**)

(%)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 조사(개신교인 대상)', 2021.7.20.,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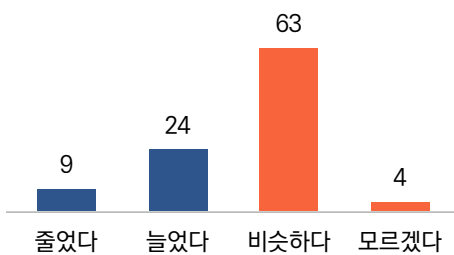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중고생조사', 2021.05.20.,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4.8.-23)

● 미국 성인, 코로나19 이전보다 성경 읽기 ‘늘었다’ 24%, ‘줄었다’ 9%

- 반면, 미국 성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 성경 읽기 변화로는 ‘늘었다’ 24%, ‘줄었다’ 9%로 ‘늘었다’ 응답이 15%p가 높았다.
-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 미국인이 한국인보다는 성경읽기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미국 성인 성경 읽기 변화

(%)



* 자료 출처 : American Bible Society, 'State of the Bible USA 2021', 2021.08.10미국 전 지역, 15세 이상 3,445명, 온라인 조사, 2021.1.4.-29)



시사점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이었다는 말은 코로나 걸렸다는 말일까, 안 걸렸다는 말일까? 사흘은 4일일까, 3일일까? 사흘의 표기는 ‘사흘’이 맞을까, 4흘이 맞을까? 이런 질문이 우스울지 몰라도 실제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 2020년 8월15일이 광복절 휴일인데 토요일이므로 정부에서 8월 17일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을 해서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사흘’동안 황금 연휴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 일부 네티즌들이 ‘3일’ 연휴인데 왜 ‘사흘’이라고 사기치나라는 항의성 댓글을 많이 달았고 ‘사흘’이 실검 1위가 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은 ‘0’에 가깝지만 문해력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5쪽 참조) 얼마 전에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해석해 준 ‘한글 단어’를 학생들이 몰라서 수업 진행이 안 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모르는 ‘한글’ 뜻에 손을 들고 ‘몰라요’라고 하라는 선생님의 요구에 아이들은 한 페이지 당 무려 14번 손을 들었다. 선생님이 영화 <기생충>을 설명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애초 <기생충>이라는 제목 대신 ‘가제’로 ‘데칼코마니’라고 했다고 설명하면서 ‘가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랍스터’라는 답이 나왔다. 실제 필자는 현직 중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영어 단어의 뜻을 한글로 이야기하면 그 단어의 뜻을 또 설명해 주어야 해서 수업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게 아니라 그 단어와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서류를 읽어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즉 문해력이 낮으면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고, 사람들 간의 의사 소통에 차질이 있다.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비단 사회 생활 뿐이겠는가? 문해력이 낮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라서 다른 종교보다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또 실제로 많이 읽는다(9쪽).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단어의 뜻과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한채 글자만 읽는 경우가 많다.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못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성경 1독을 열심히 했지만 성취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왜 문맹률은 0%에 가깝지만 문해력은 떨어질까? 많은 전문가들은 ‘독서 부족’을 지적한다. 문해력은 독서를 통해서 높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성인 중 지난 1년 간 책을 1권도 읽지 않은 비율은 44%로 절반이 채 안됐다(3쪽). EBS<당신의 문해력>에서는 독서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의 상태를 조사해 보았다. 평균 1년에 20권 정도를 읽는 사람들과 한 권이나 읽을까 하는 사람들의 전전두엽 활성화 정도를 검사한 결과 활성화 기능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뇌의 ‘전전두엽’은 사람의 인지 기능에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전전두엽’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의미를 파악하는 인지적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성화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글자’만 읽고 있을 때, 인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전전두엽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이다. 그러므로 독서를 하지 않으면 문해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면 책을 읽기 싫을 뿐만 아니라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므로 책을 더 멀리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자녀들의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성경을 읽어도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

나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다. 성경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을 1독하고 성취감만 느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도 느껴야 한다. 자녀에게만 '책을 읽어라'고 잔소리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책을 읽어야 한다. 평소 운동을 안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안 쓰던 근육을 써야 하므로 힘이 들고 괴롭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편안해지듯이 독서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된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독교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시작하는 것도 성경 문해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처음에는 짧고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고전까지 읽어 나가 성경 문해력을 키워 성경을 읽으면 성경 1독의 성취감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희열을 맛 볼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데이트 폭력 실태]

2020년 한 해 데이트 폭력 사건, 5년 전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루 52건 꼴!)

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우리나라 국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명 중 1명 꼴!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데이트 폭력 실태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지하철 기관사였는데 지하철 안내방송을 통해 딸의 사연을 국민청원했는데 관심을 부탁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데이트 폭력이 일반인들도 인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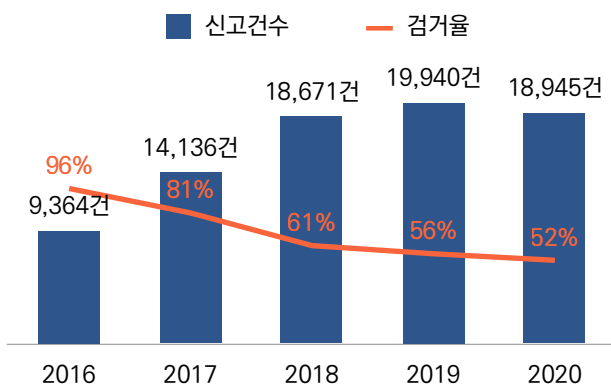
데이트폭력 사건의 근절을 바라면서 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2020년 한 해 데이트 폭력 사건, 5년 전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루 52건 꼴)!

- 최근 발표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데이트 폭력 사건은 18,945건으로 5년 전인 2016년(9,364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52건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꼴이다.
- 신고 건수 대비 실제 검거한 '검거율'은 2016년 96%였는데 반해 2020년은 52%로 크게 감소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그림] 연도별 데이트 폭력 사건수 vs 검거율 (%)



*자료 출처: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정감사보고자료,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 2021.09.20.(경찰청 자료 재구성)

● 지난 5년간 살인(살인 미수 포함)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 227명!

- 2016년~2020년까지 5년 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피해자 227명이 데이트 상대자로부터 살인 및 살인의 위협에 시달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림] 지난 5년 간 데이트 폭력 주요 유형별 피해자 수 (건)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5년간)
살인(미수포함)	52	67	42	35	31	227
성폭력	233	143	117	95	56	644
체포/감금/협박	1,225	1,474	1,567	1,727	1,325	7,318

*자료 출처: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정감사보고자료,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 2021.09.20.(경찰청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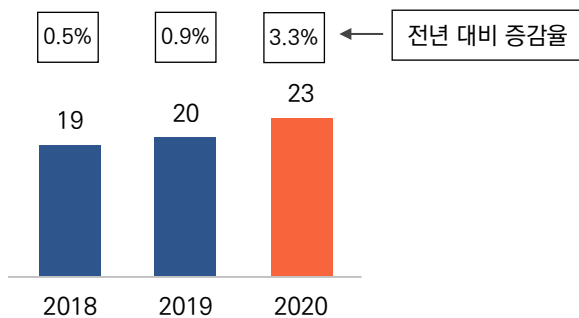
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우리나라 국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명 중 1명 꼴로 해마다 증가 추세!

- 최근 발표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명 중 1명꼴(23%)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19%, 2019년 20%였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20년 23%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 Note: 스마트폰 과의존군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다른 일보다 스마트폰 이용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함

[그림] 2018~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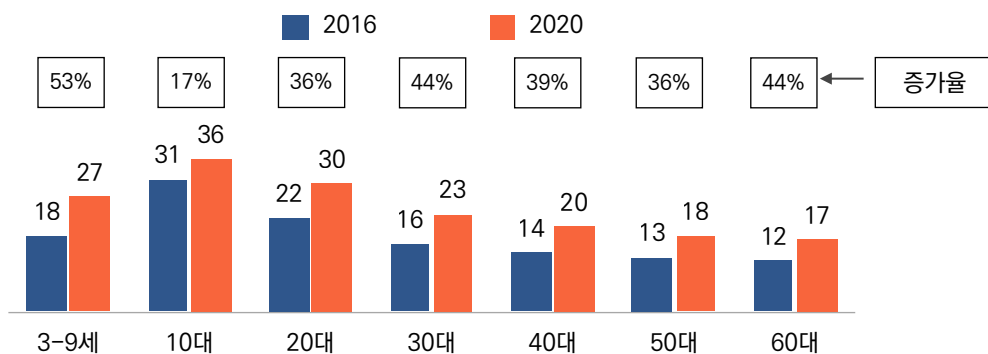


*자료 출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2021.09.22.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16,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재구성함)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5년 사이 '10세 미만 아동층' 무려 53% 증가!

- 2020년 기준 지난 5년 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9세' 아동층으로 무려 53%가 증가했다.
- 특히 2020년 기준 '10대'는 36%로 과의존군 비율이 가장 높는데 3명 중 1명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20대'가 30%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해 20대 이하 층의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증가는 그대로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회가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교육 등을 마련해 교회의 공공성을 높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연령별 비율 (%)



*자료 출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2021.09.22.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16,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재구성함)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67호\(2021년 10월 1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내년 대선 결과 기대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48호 \(2021년 10월 1주\) - 대통령 국정 운영, 차기 정치 지도자 등](#)

[연령대 따라 세 갈래로 나뉜 선호 후보... '세대 전쟁' 대선 될까](#)

경향신문_2021.10.06.

사회

[10집 중 4집은 '1인 세대'...통계 작성 사상 처음으로 40% 넘겨](#)

["교감이 형님할라" 남 얘기 아니다...원동이 아빠 역대 최대](#)

중앙일보_2021.10.02.

[결혼해도 가까이 살려 하고... "나이 들어 부모 더 챙기는 건 딸"](#)

조선일보_2021.10.04.

[불황에 복권 판매액 최고치 "1주일 버티는 힘"](#)

동아일보_2021.10.02.

["코로나에도 명품백·주얼리·시계 고가 수입품 세액 늘었다"](#)

국제뉴스_2021.10.04.

일반

[절도는 줄었는데... '노인 장발장'은 늘었다](#)

조선일보_2021.10.06.

[7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 매일 약물 5개 이상 챙겨 먹어](#)

조선일보_2021.10.07.

[같은 정규직 대졸초임인데...대기업 5천84만 vs 5인미만 2천611만](#)

연합뉴스_2021.10.04.

[지구가 1.09도 뜨거워질 때 한반도는 1.8도 올라... 지구 평균 훌쩍 넘었다](#)

조선일보_2021.10.06.

트렌드

["TIGER OR CAT"...김남도 2022 소비트렌드 무슨 뜻?](#)

매일경제_2021.10.06.

['시발'이 왜 거기서 나와... 언어의 품격, 선을 넘었다](#)

조선일보_2021.10.04.

다
음
세
대
/
청
년

[초중고생 학부모 10명중 5명 “자녀가 코로나 우울감 표출”](#)

동아일보_2021.10.05.

["코로나로 학력격차 심해졌다" 71%](#)

매일경제_2021.10.04.

[숫자로 본 코로나 이후 학생 생활...사이버폭력, 여가시간 급증](#)

중앙일보_2021.10.02.

[5년간 촉법소년 범죄자 4만명](#)

매일경제_2021.10.05.

[20대 국민 10명중 4명 "통일 필요없어...북한은 위협국"](#)

매일경제_2021.10.05.

[남성은 2·3년제, 여성은 대학원 졸업하면 결혼 멀어진다](#)

중앙일보_2021.09.30.

[서울 청년층 53% “부모 도움없인 내집마련 불가능”](#)

조선일보_2021.10.06.

[상반기에만 39조 '영끌 빚투'...2030 주식투자 경고음](#)

연합뉴스_2021.10.03.

국
제

[7월 세계 관광객 5400만명... 코로나 이후 최다](#)

동아일보_2021.10.06.

[내로라하는 병원들 제쳤다, 암진료 세계 5위 오른 韓병원은?](#)

중앙일보_2021.10.02.

이슈 큐레이션

["인구 부총리 꼭 필요...정년연장하고, 청년 주거복지 확대"](#)

중앙일보_2021.10.06.

[1인세대 비중 40% 첫 돌파, 정부 정책 대응 서둘러야](#)

매일경제_2021.10.07.

* 기획기사 : 코로나시대 MZ 사랑법

[헌팅·소개팅? 요즘은 '이것' - 국민일보 2021.09.18.](#)

[외로우면 '셀소'해!" - 국민일보 2021.09.20.](#)

[온라인 즉석만남, 이것도 사랑일까 - 국민일보 2021.09.21.](#)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복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탐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JC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프,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용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김수현(서대문 ESF)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